

신약 하나에 매달린 회사 위험... 연구원 잦은 교체도



위기의 K-바이오

진짜 '바이오' 감별법

임상단계서 파이프라인 확보 상태 자금 상태 등 기업 사업전략 확인 임상성공가능성·대안 등은 미공개 공개된 임상 결과 꼼꼼히 비교해야



바이오는 정말 허상에 불과할까. 최근 바이오기대주들의 연이은 실패로 시장에선 '바이오 포비아'가 나타나고 있다. 바이오라면 무조건 추종하던 투자심리가 바이오라면 무조건 기피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이다. 기대가 높은 만큼 실망이 깊었던 탓이다.

일각에선 최근 몇년간 이어져온 '바이오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신약 하나로 '대박'을 꿈꾸던 기대가 사라진 것이다. 이 암흑기가 지나고 나면 바이오에 대한 진짜 '육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품을 걷어내면 빛을 발할, 진짜 바이오주를 찾아내야 할 시기가.

◆가치주 어떻게 구별하나

11일 업계 전문가들은 우선 신약 파이프라인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신약 하나에 매달려 있는 회사라면 리스크가 크다. 통계상 임상1상 중인 약물이 출시될 확률은 10%다. 10개 중 1개는 실패로 끝난다는 얘기다. 임상3상 중인 약물 역시 출시 가능성은 절반(50~60%)에 불과하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은 외부에 노출된 임상 1상~3상 과정에 있는 외부에 노출된 파이프라인의 3~5배수의 파이프라인을 전임상 단계에서 유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임상의 실패나 설계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전임상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파이프라인을 유지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업의 사업 전략도 살펴야 한다.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보수적이고 현실적으로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 진흥국 연구원은 "R&D비용을 과도하게 집행 하는 제약사들보다 바이오시밀러, 보툴리눔 독신, 임플란트, 의료기기 등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해 이익을 꾀하는 업

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며 "신약개발은 후기임상은 진행하지 않고 초기단계에서 기술수출하는 NRDO와 같은 업체, 글로벌 빅파마들이 해외임상 및 판매를 대행해 비교적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업체들이 주로 부각될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바이오벤처가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지 않았다면,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임상 3상 진입은 신약 개발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지만, 이 역시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최근 실패 사례들에서 시장이 학습하게 됐다"며 "국내에 허가받은 바이오 신약이 아직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심 신약의 상업화 가능성이 가시화된 후 투자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이상 징후' 미리 감지해야

과도하게 임상 진입 자체만을 부각시키는 기업은 일단 경계하라는 조언도 이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벤처는 어떻게든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다음 단계 임상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을 크게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전

단계에서 문제가 발견됐어도 서둘러 밀어부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을 호재라고 판단하기보다 꼼꼼히 지금까지 공개된 임상 결과를 비교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라젠이 신약의 기전과 임상뿐만 아니라 실패하거나 지체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책을 사전에 알렸다면 그만큼 큰 충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시 규정도 임상실험 개시만 알릴 뿐, 임상 성공 가능성, 실패나 지체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공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핵심 연구인력, IR 담당자의 잦은 교체도 이상 징후다.

이름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핵심 연구인력의 잦은 교체와 변경도 회사 개발라인의 일관성,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중요한 임상 진행단계에서 핵심인력의 이탈과 잦은 변경도 이상 징후로 봐야 한다"며 "IR·공시담당자의 잦은 교체 역시 거래소 공시팀이나 시장 감시본부가 경계하는 이상 징후다. 신라젠의 경우 IR 담당자들 사이에선 기피 대상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세경·손영지 기자 seilee@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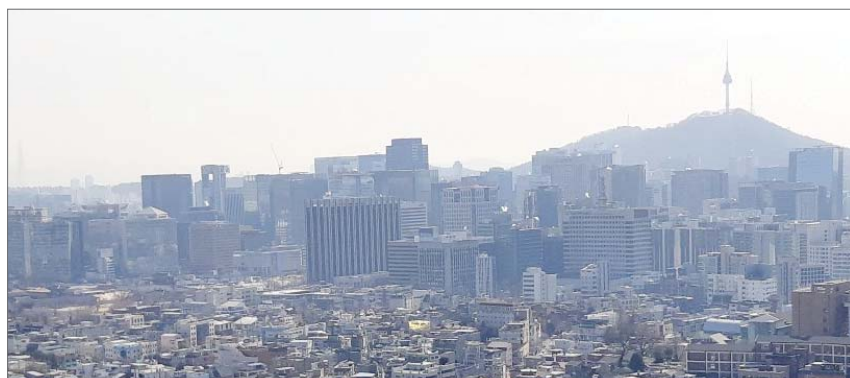
연 5% 이상 배당... 꾸준한 배당으로 신뢰 UP

저금리 시대 재테크

공모형 '리츠' 각광

중위험 중수익으로 리스크 ↓ 자산관리 여부 등 확인해야
韓·美·日서 사상 최고가 기록

신한알파리츠·이리츠코크랩
에이리츠, 올 들어 20% '급등'



오피스빌딩 투자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리츠 시장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시내 전경.

직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여유자금 4000만원으로 공모 리츠인 '신한알파리츠'에 청약했다. 공모가는 5000원. 매년 배당 수익에다 주가 흐름도 안정적인 것 같아 투자했던 것이 다른 어떤 투자보다 '대박'이 됐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해졌고, 금리마저 인하로 방향을 틀면서 주가는 7000원을 넘어섰다. 주가만 40%가 넘게 급등했고, 배당금은 은행 정기예금 이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A씨는 이전 공모 리츠의 청약이 미달됐던 점을 감안해 실제 투자할 금액에 맞춰 청약에 나섰다. 경쟁률이 4대 1을 웃돌면서 예상보다 투자금이 적었던 것이 아쉬울 뿐이다.

전 세계 증시가 일제히 뒷걸음질하는 사이 오히려 주가가 뛰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종목이 주인공이다.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랩, 에이리츠 모두 올해 들어서만 20% 안팎으로 급등했다.

리츠 투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이유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 리츠의 성공 사례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배당수익률이 안정적이지 못했다는 점인데 이리츠코크랩과 신한알

파리츠가 꾸준한 배당으로 신뢰를 쌓으면서 저금리시대 최고의 투자처로 떠올랐다.

리테일리츠와 오피스리츠에 이어 재간접리츠와 이를 담은 상장지수펀드(ETF)까지 투자자들의 선택지도 다양해지고 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5개다.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랩, 에이리츠, 모두투어리츠, 케이탑리츠 등이다.

리츠는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대표적인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리츠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배당수익률이다. 리츠는 투자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한다. 우량 임차인만 확보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상장 리츠는 그간 기관투자자나 고액자산가가 투자할 수 있었던 부동산 물건에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남궁훈 신한리츠운용 대표는 "리츠가 국내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며 "저금리 시대에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한알파리츠는 판교 알파돔타워와 용산 더프라임빌딩 등에 투자한 오피스 리츠다. 6개월 마다 배당을 하는데 지난 3월 말 기준 주당 배당금은 137원으로 공모가 대비 배당수익률은 2.74%에 달한다. 연 수익률로는 5%를 웃돈다.

이리츠코크랩은 기초자산으로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5개 점포(뉴코아 아담점, 일산점, 평촌점, 중계점, 분당점)를 담고 있다. 주당 175원을 배당키로 해 공모가 대비 배당수익률은 무려 연 7%다.

하반기에도 리츠 상장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NH농협리츠운용은 오는 10월 업계 최초로 재간접형 공모리츠를 상장

〈국내 상장 리츠 주가 등락률〉

국내 상장 리츠	주가 등락률
신한알파리츠	23.49% ▲
이리츠코크랩	19.79% ▲
에이리츠	19.40% ▲
모두투어리츠	-10.26% ▼
케이탑리츠	-29.39% ▼

연초 후 지난 7일 종가 기준. /자료=에프앤가이드

할 예정이다. 1차 편입 자산은 도심권의 서울스퀘어, 강남권의 삼성물산서초 사옥과 N타워, 잠실권의 삼성SD스타워 수익증권이다.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백화점과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기초 자산으로 한 공모리츠를 상장한다. 자산 1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리츠다.

어느 한 종목을 고르기가 어렵다면 ETF가 대안이다.

지난달 상장한 'TIGER 부동산인프라고배당'은 신한알파리츠와 이리츠코크랩, 맥쿼리인프라, 맵스리얼티 등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우선 편입하고, 나머지를 고배당 주식으로 채운다.

리츠는 주식과 채권 사이에 위치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지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이자를 주는 예금은 아니다.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는 "리츠가 다른 투자 상품들과 비교해 위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해당 리츠가 어떤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편입하고 있는지, 자산관리는 누가 하는지 등 세심하게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산재 근로자 3.2만명 산업 현장으로 복귀

상반기 기준 전년 비 20.2% ↑ 복귀율 65.03%, 3.45%p 증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직업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산재 노동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특화서비스가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현장에 재취업한 직업복귀율이 65.0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포인트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지역본부 6곳과 원주·수원지사 등 8개 권역별 재활지원팀에 취업 전문가를 배치하고 산재 근로자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414건에서 올 상반기 7762건으로 127.35% 늘었다.

재활지원팀은 민간 취업전문기관 32곳과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과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 등과 연계,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등록, 취업설명회 개최 등 직접 서비스로 대상별 맞춤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산재 장애로 인해 원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직무 변경이나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한 산재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직업복귀자 수는 3만15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6276명)보다 5297명(20.2%) 늘었다. 산재근로자 약 80%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이고 산재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화된 재취업서비스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 결과로 해석된다.

/손현경 기자 son89@